

#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관련 양성평등의식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성 미 경 · 이 희 영<sup>†</sup>  
(대연중학교 · <sup>†</sup> 부경대학교)

## Effect of Gender Equality Career Education Program on Vo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Mi-Kyung SUNG · Hee-Yeong LEE<sup>†</sup>  
Daeyeon Middle School · <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7, 2007 / Accepted April 9, 2007)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 of the gender equality career education program on vo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2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ith 36 students each. Korea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areer Identity Scale of My Vocational Situation(MVS) were used to measure vo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and career ident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vo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and higher career identity than the control grou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career guidance we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career education, vocational gender egalitarianism, career identity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김양희 외, 2002). 양성평등의식은 현대는 물론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은혜 외, 2005).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에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역할놀이(정중보, 2005),

영화치료(서정임, 200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예, 박수은, 2005)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측면(즉,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과 관련이 있지만 직업 관련 분야가 연구자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직업 선택은 배우자 선택과 더불어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Parsons, 1909). 사실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이 달라진다(Tolbert, 1980). 직업선택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직업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851, hylee@pknu.ac.kr

력, 성격, 적성, 흥미 등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과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Holland, 1992),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진로 탐색 과정이 어떤 불합리한 요인에 의해 제한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차별적인 유교사상에 기인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남아 있고,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적 목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타고난 개성과 능력의 발휘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강재태·배중훈·강대구, 2003). 다시 말하면, 남녀의 역할을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맞추어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직업선택도는 전통적인 직업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순(200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직업선택 경향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중학생의 직업선택도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비합리적 직업선택경향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특히 남성과 여성이 정형화된 성역할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유능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 사회 통념상의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평등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성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진로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2003)에서 최근 중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성별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제고하고,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수립·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중등학교용 양성평등한 진로 지도를 위한 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3)를 개

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몇몇 연구자들이(김정미, 2005; 최미재, 2004; 홍명환, 2006) 이 지침서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홍명환(2006)은 초등학교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성숙에 대한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김정미(2005)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총 15회기로 구성된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성평등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미재(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성숙 및 성역할 의식 변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충되는 연구 결과는 대상에 따라 양성평등 진로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미래의 직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 잘못 형성된 성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남녀 차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양성평등한 진로 탐색을 도울 필요가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중학생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성평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로 진로성숙이라는 특정 변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진로성숙보다는 진로정체감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진로성숙은 교육적·직업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 즉 의사결정준비도를 의미하는(이희영, 2003) 반면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

미, 능력에 대한 명료하고 안정된 상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Holland, Daiger & Power, 1980), 양성평등 진로교육은 직업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기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D중학교 2학년 2개 학급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1개 학급 36명은 실험집단에 다른 1개 학급 36명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 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처치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대해 남녀평등의식과 진로정체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집단에 실험처치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남녀평등의식과 진로정체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은 Krumboltz의 진로의사결정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 결정은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과 과제접근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자기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가 왜곡되는 경우 진로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관찰 일반화란 자신의 흥미, 가치 등에 대한 외현적·내면적 평가를 의미하고, 세계관 일반화란 개인의 직업세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Mitchell & Krumboltz, 1996).

이 관점에서 보면 진로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은 왜곡된 자기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 때문에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Ellis(1962)가 제시한 논박 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론을 기초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의 성역할 관련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선택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셋째, 자신의 양성평등 관련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성평등한 미래 진로를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2003)에서 개발한 '양성평등한 진로지도'를 위한 지침서'에 있는 프로그램,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2004)에서 개발한 '담임교사를 위한 중학교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2002)에서 개발한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이 자료들이 일선 학교에 보급되어 있어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일선학교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활동의 다양성을 피하기 위해 활동자료에 기초한 발표 및 토론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과 역할극 및 인터넷 등도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주로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나 인터넷 검색 활동을 위해 컴퓨터실도 이용하였다.

#### 4. 측정도구

##### 가) 남녀평등의식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남녀평등의식 검사는 김양희와 이수연 및 김혜영(2002)이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 KGES-A)로, 이 검사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인 직업생활에 대한 것으로 취업활동과 관련한 남녀의 능력, 남자와 여자의 직업진로와 적성, 직업 현상에서의 남녀간 역할과 행동규범, 권한과 관계,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는 15문항의 검사지를 사용했다. 응답 방법은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에 자신의 태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제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6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직업생활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 나) 진로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2점-그렇다, 3점-그렇지 않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전체 점수의 합은 18점에서 72점 사이가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대해 좀 더 그림을 명확히 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5.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첫 번째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1개 반을 실험집단으로, 실험집단과 구성원의 특성이 유사한 같은 학년 다른 1개 반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적응활동 시간에 남녀평등의식과 진로정체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자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총 11회기로 구성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2005년 10월 4일에서 12월 13일까지 매주 1회(45분) 11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사전 검사와 동일한 남녀평등의식 검사와 진로정체감 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6. 자료 처리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관련 남녀평등의식 및 진로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

<표 1>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주제 및 활동 내용

회수	주 제	활 동 내 용
1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 안내하기 · '나의 소개서' 작성 및 '나의 직업별칭' 그리기
2	성역할 고정관념 허물기	·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파악하기 · 성역할 고정관념 허물기
3	여자 직업, 남자 직업? : 다시 생각하기	· 성역할 인식 퀴즈 · 용기 있는 선택 배워보기
4	여성의 직업 활동, 걸림돌과 디딤돌	· 직업활동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원인 파악하기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 탐색하기
5	나의 인생디자인 하기	· 일, 직업과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기 · 나의 이력서 쓰기
6	나의 진로흥미	· 진로흥미검사 소개 및 실시 · 진로흥미검사 해석 및 관련 직업 탐색
7	양성평등 직업세계, 그 변화 모습은?	· 미래사회와 직업세계 변화 예측해 보기 · 양성평등 성장 직종 알아보기
8	내가 원하는 21세기 양성평등 직업정보	·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 찾기 · 직업명함 만들기
9	양성평등 진로의식 관련 비합리적 신념 바꾸기	· 양성평등 진로의식 관련 비합리적 신념 찾기 · 양성평등 진로의식 관련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10	나의 양성평등 진로미래 설계	· 상급학교 체계를 통한 학교 및 학과 선택하기 · 양성평등 직업인으로서 미래모습 그려보기
11	마무리하기	· 그 동안의 활동 경험 회상하기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종결하기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의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 사전검사(실험 M=48.11, 통제 M=47.94)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상호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사전점수의 평균차 검증

집단구분	N	M	SD	t
실험집단	36	48.11	8.61	.08
통제집단	36	47.94	8.92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직업관련 남

녀평등의식이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의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후검사에서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 점수(실험 M=52.81, 통제 M=48.97)는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받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수용되었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사후점수의 평균차 검증

집단구분	N	M	SD	t
실험집단	36	52.81	5.81	2.53*
통제집단	36	48.97	6.98	

\*  $p<.05$

2.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정체감의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의 진로정체감 사전검사(실험 M=42.69, 통제 M=41.2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상호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정체감에 대한 사전점수의 평균차 검증

집단구분	N	M	SD	t
실험집단	36	42.69	5.48	.81
통제집단	36	41.25	9.14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의 진로정체감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사후검사에서 진로정체감 점수(실험 M=49.67, 통제 M=42.19)는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받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도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수용되었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정체감에 대한 사후점수의 평균차 검증

집단구분	N	M	SD	t
실험집단	36	49.67	7.16	3.75***
통제집단	36	42.19	9.56	

\*\*\*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과 진로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미석 등(1998)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직업에 대한 편향된 선호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남녀학생들의 직업선호도가 전통적인 성역할과 부합하는 형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이러한 성차별적 의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직업관련 남녀평등의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과정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본 프로그램 실시자의 관찰에 의하면 여러 활동 중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 허물기'와 '양성평등 진로의식 관련 비합리적 신념 바꾸기'가 이러한 의식 변화에 효과적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활동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분야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Krumboltz의 진로의사결정의 사회학습이론과 Ellis(1962)의 REBT 이론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중 Ellis의 이론은 인간의 태도나 행동에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취하며 어떤 현상과 관련된 비

합리적 신념을 찾고 이를 논박을 통해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역할 고정관념 허물기'와 '양성평등 진로의식 관련 비합리적 신념 바꾸기'의 핵심 활동은 논박을 통해 자신이 직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논박 전략이 양성평등의식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의식 변화에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김정미(200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양성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직업생활 관련 남녀평등의식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허명희(2003)의 연구 결과와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켰다는 박수은(200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학생스스로 자신의 흥미,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목표를 설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진로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이 진로정체감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직업적 발달 과업이다(Erikson, 1963).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박찬수(200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편지 쓰기를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희경

(2003)은 여고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진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광대섭(2004)과 김은미(2003)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프로그램과는 달리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진로정체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런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반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안된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 향상 및 진로정체감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진로지도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시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재태 · 배종호 · 강대구,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광대섭,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형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중등학교용 양성평등한 진로 지도를 위한 지침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양희 · 이수연 · 김혜영,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2.

- 김은미, 여중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정미,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중학생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대구진로교육, 5, pp.85~145, 2002.
- 박수은,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은혜·김희진·조문현·최혜영, 유아기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25(2), pp.165~198, 2005.
- 박찬수, 진로편지쓰기를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및 진로성숙도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담임교사를 위한 중학교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2004.
- 서정임,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희경, 진로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희영,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3.
- 정종보, 역할놀이 수업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진미석·손유미·정윤경·이지연, 중학생의 진로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 최미재,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성역할 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명희, 양성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Ellis, A.,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J: Citadel, 1962.
-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2nd ed).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pp.1191~1200, 1980.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and L. Brook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233~280),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 Parsons, F,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09.
- Tolbert, E. 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0.